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9월

발행일 : 2025년 8월 29일

KOTRA VIETNAM BUSINESS NEWS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해외시장뉴스	16
✓	<팀코리아협의회동정>베트남서 돌보인 韓 재난안전 기술력... 270억원 규모 계약 체결	17
✓	<기업탐방> 하나건설	18
✓	<법률>베트남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점.....전현우 변호사	21
✓	<회계>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18탄.....엄진용 회계사	23
✓	<통관>수입후재수출시관세정책.....이여람 관세사	27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선라성>.....	30
✓	<이달의보고서> 2025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전략..... 2025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해외 주요국 AI 정책 및 산업 동향.....	37
✓	<이달의전시회> 2025 베트남 하노이 제3차 건축자재 전시회.....	38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39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44



베트남 천연고무 시장 동향

- 베트남, 세계 3대 천연고무 생산국으로 한국 주요 공급망 거점
- 글로벌 공급 축소와 가격 변동성 확대로 수입 시 지속적인 동향 모니터링 필요

시장동향

베트남은 1897년 프랑스에 의해 고무나무가 처음 도입된 이후, 동나이, 빈즈엉(현 호치민시), 빈프억(현 동나이), 떠이닌 등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무 재배가 확산됐다. 현재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3대 천연고무 생산국 중 하나로 성장했다. 베트남 천연고무 시장은 크게 표준 베트남 고무(SVR), 리브드 스모크 시트(RSS), 농축 라텍스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SVR 제품이 전체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베트남 고무 기업은 SVR 및 라텍스를 중심의 생산 구조를 갖추고 있다. 베트남은 약 93만 8천 헥타르에 달하는 고무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고무 재배 면적의 약 7.2%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반으로 베트남은 세계 3위의 천연고무 생산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베트남고무협회(VRA)에 따르면, 2024년 베트남 천연고무의 평균 수출 가격은 톤당 1701달러로, 전년 대비 약 26% 상승하며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5년 1월에는 평균 수출 가격이 톤당 1859달러에 도달하며 고점 흐름이 이어졌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글로벌 공급 부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국제 고무 시세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베트남 천연 고무 가격 또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수요 탄력성이 낮아 가격이 10% 상승하더라도 소비는 약 3%만 감소하는 수준이다. 도매 부문 가격은 톤당 1,850~1,900 USD로 국제 현물 시세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통 동향

베트남의 천연고무 유통 시스템은 원자재 수급부터 가공, 국내 유통, 해외 수출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으로 통합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빈프억(Binh Phuoc), 닥농(Dak Nong) 등 주요 고무 재배지에는 유통·무역업체의 자체 가공 공장이 밀집해 있으며, 이곳에서 고무 수액을 확보한 후 SVR 3L, SVR 10, CV60 등 국제 표준 제품으로 1차 가공돼 국내외로 공급된다. 유통업체들은 자체 품질관리 체계와 물류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는 ISO 9001 및 ISO 14001 품질·환경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 천연고무 생산의 상당량은 고무나무 재배, 수확, 가공, 수출까지 일괄 수행하는 대형 생산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국영 기업 또는 그 계열사로 구성돼 있으며, 수직계열화된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품질과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고무그룹(Vietnam Rubber Group, VRG)은 연간 약 32만 톤의 고무를 생산해 베트남 고무 생산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4위 규모의 고무 생산 기업으로 평가된다. 약 41만 헥타르에 달하는 재배 면적과 100여 개 자회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 세계 7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VRG 산하에는 푸옥화고무(PHR), 탄비엔(Tabiruto), 동푸(DORUCO), 호아빈(HORUCO) 등의 자회사가 포함되며, 각 기업은 독립적으로 농장을 운영하면서도 VRG의 품질 기준과 유통망을 공유하고 있다.

수출 동향 및 관세율

2024년 베트남의 천연고무 수출액은 총 7억8278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4% 증가하며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가별 수출 실적을 보면, 인도가 최대 수출국으로 1억7325만 달러(점유율 22.1%)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3.1% 증가했다. 중국은 1억1819만 달러(점유율 15.1%)로 2위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103.3%의 큰 증가폭을 보였다. 대한민국은 약 7293만 달러로 3위를 유지하며 전년 대비 15.3% 증가했으나, 점유율은 9.6%에서 9.3%로 소폭 하락했다. 2024년 수출 물량은 약 2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했으나, 글로벌 공급 부족과 국제 시세 상승으로 단가가 상승(톤당 1701달러, 전년 대비 +26%)하며 전체 수출액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2025년 1월에는 단가가 1859달러로 오르며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산 천연고무는 현재 수출 쿼터나 금지 조치 등 직접적인 수출 제한이 없다. 고무 산업은 베트남 정부의 전략 수출 산업으로 지정돼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수출이 적극 장려되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 천연고무의 3대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제조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으며, 한국향 수출에 별도 규제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 측면에서도 베트남산 고무 수입을 위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현재 베트남은 2014년 고무류 수출세를 1%에서 0%로 인하한 이래,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국 역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VKFTA) 및 한-아세안 FTA(AKFTA)에 따라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시사점

천연고무 시장은 최근 기후 변화와 글로벌 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베트남은 블록 고무, SVR 계열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FTA 협정을 통해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추적 가능 시스템 및 국제 인증 확대, 심층 가공 능력 강화 등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신뢰성 높은 공급처로서의 매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환경·지속가능성 관련 고무 수입 규제가 강화되면서 베트남의 기존 수출 대상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베트남과의 협력 기회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생산지와 추적 가능 시스템 연계, 장기계약 및 OEM 협력 체계 구축, 재고 분산 운영 등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세계 3대 고무 생산국인 베트남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중장기 공급망 다변화 및 가격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밥 대신 빵'... SNS 확산 속 퓨전·비주얼 경쟁 치열한 베트남 베이커리 시장

- 건강 트렌드, 현지화된 글로벌 레시피, 한·일식 베이커리 확산 트렌드가 주도하는 베트남 베이커리 시장
- 차별화가 어려운 시장, SNS와 비주얼 중심 전략 및 현지 맞춤 운영이 중요

시장동향

베트남 베이커리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 인스토어 베이커리(In-store Bakery, 대형마트·백화점 내 제빵 코너) 매출은 4억8,394만 달러로 2019년 대비 29.5% 증가했으며, 특히 2022년 한 해 동안 4,285만 달러가 늘어나 가장 큰 연간 증가폭을 기록했다. 팬데믹을 계기로 가공식품 선호가 확대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제품군별로는 발효빵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매출은 2019년 대비 34.2% 증가했으며, 방부제를 최소화한 신선한 제품과 건강 지향 소비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케이크는 여전히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지만 성장률이 완만해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 페이스트리는 규모는 작지만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식생활 구조의 전환과도 맞닿아 있다. 과거 쌀밥과 쌀국수가 대표적인 주식이었으나 최근에는 빵을 식사 대용으로 소비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통계청(GSO)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쌀 소비량은 2014년 9.0kg에서 2022년 6.9kg으로 감소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Statista는 베트남의 빵 매출이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이 같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시장 최신 트렌드

(1) 건강 트렌드의 부상

베트남에서는 건강을 중시하는 식생활이 하나의 뚜렷한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말 Herbalife가 발표한 'New Year, New Me'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건강한 식단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86%는 내년부터 더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당·고지방 제품에 대한 수요는 점차 줄고 있는 반면, 치아시드 등 슈퍼푸드를 함유한 제품, 통곡물 빵, 저당 페이스트리 등 건강을 고려한 베이커리 제품이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맛뿐 아니라 영양과 기능성까지 고려하는 소비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베이커리 업계 역시 이에 맞춰 건강을 고려한 제품 개발에 주력하는 추세다.

(2) 글로벌 레시피와 현지 베이커리 스타일의 결합

베트남 소비자들 사이에서 서양식 베이커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커피 전문점과 디저트 카페 확산으로 다양한 제과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서양식 디저트에 관한 관심도 함께 커진 것이다. 동시에 기존 서양식 제빵 방식에 베트남 고유 식재료를 활용한 퓨전 베이커리도 주목받고 있다. 코코넛, 망고, 두리안, 흑임자, 타로, 판단잎, 나비콩꽃 등 베트남 전통 식재료를 활용한 제품들이 서양식 베이커리에 접목돼, 현지 소비자의 입맛과 감각을 반영하며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한편, 명절 시즌에는 전통 동양식 제과인 월병에

서양식 재료를 결합한 방식의 퓨전 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치즈, 커스터드 등을 접목한 퓨전 월병은 명절 고급 선물 수요와 맞물려 개인 소비자뿐 아니라 기업 고객까지 겨냥한 전략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3) 한국·일본식 베이커리, 현지에서 입지 확대 중

최근 베트남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식문화와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제품들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베이커리는 뚜레쥬르(Tous Les Jours), 파리바게뜨(Paris Baguette)와 같은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운영하는 개인 매장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특히 개인 매장에서 소금빵, 크루키, 허니브레드, 소시지 빵 등 한국 내에서 유행하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해, 현지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베이커리 역시 말차 케이크, 모찌 등 다양한 일본식 제품을 취급하며, 대량 생산보다는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시하는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가격대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일본 음식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젊은 층과 가족 단위 소비자들 사이에서 꾸준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경쟁동향

베트남 베이커리 시장은 현지 강자, 해외 프랜차이즈, 그리고 대형 유통채널이 동시에 경쟁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현지 브랜드 중 Fresh Garden은 7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학교, 병원, 공항 등 생활 밀착형 입지 전략으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과 현대적인 매장 진열 방식도 도시 소비자들의 선호를 이끌고 있다. ABC Bakery는 ‘베트남의 제빵왕’으로 불리는 카오 시에우 루익 대표가 운영하며, 맥도날드·버거킹 같은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과 스타벅스, 더 커피빈 등 카페 프랜차이즈에 제품을 공급하는 B2B 네트워크로 차별화되고 있다. 국제 브랜드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BreadTalk은 아시아와 서양의 맛을 결합한 제품 콘셉트로 현지 시장에 안착했으며, 한국 브랜드인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는 카페형 매장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전략을 펼치며 주요 도시에서 점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AEON, LOTTE Mart, GO! 등 주요 슈퍼마켓 체인과 GS25, 7-Eleven 등 편의점 역시 자체 베이커리 코너를 강화하면서 소비자에게 일상적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있어 시장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시사점 및 진출전략

베트남 베이커리 시장은 제품 간 유사성이 높아 차별화가 쉽지 않으며, SNS를 통한 인기 제품 확산과 빠른 모방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브랜드 인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고유한 경험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젊은 소비층은 외형과 시각적 완성도를 중시해 인플루언서 협업 등 온라인 마케팅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하노이에 매장을 준비 중인 한국 카페 체인 대표는 호치민은 외국계 경쟁이 치열한 반면 하노이는 초기 진입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베트남의 젊은 인구 비중을 고려해 한국 청년층에서 인기 있는 제품을 현지화하고, 본사 운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현지 특성에 맞춘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염모제 시장 동향

- 2024년 기준, 한국은 베트남의 헤어케어 포함 염색약 수입국 4위
- HS Code 3305.90 품목의 대베트남 수출시 한-베 FTA(VKFTA) 무관세 혜택 적용

시장동향

시장조사기관 Euromonitor에 따르면, 베트남 헤어 염색제품 시장의 판매규모는 2019년 3060만 달러 규모에서 2020년 3110만 달러로 소폭 증가한 이후 2021년에는 2810만 달러로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2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며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에는 3060만 달러로 2019년의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염모제 시장 규모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9년에 35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들어 염색을 통한 스타일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소비자의 개성과 표현 욕구 확대, 다양한 염색약 제품군의 출시 등 시장 저변 확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두발용 제품류 품목은 염색약뿐만 아니라 린스, 헤어크림 등 모발용 제품 전반을 포함한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모발 케어 제품 수입액은 2022년 5,152만 달러에서 2023년 2억6,651만 달러로 약 5배 급증했으나, 2024년에는 5,026만 달러로 급감해 2022년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산 제품은 2022년 416만 달러에서 2024년 515만 달러로 3년 연속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점유율은 2022년 8.1%에서 2023년 1.8%로 급락했다가 2024년 10.3%로 반등했다. 2023년 점유율 급감은 한국산 경쟁력 약화보다는 중국산 제품 수입의 비정상적 급증에 따른 구조적 왜곡 현상으로 해석된다. 2024년 시장이 정상 범위로 조정되면서 한국산 점유율이 빠르게 회복된 것은 고품질·브랜드 신뢰도·안정적 공급 역량 등 한국산 제품의 강점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주요 브랜드 및 유통구조

최근 3년간 수입 통계를 보면 베트남 염모제를 포함한 헤어케어 제품은 태국·중국 등 아시아산 비중이 크며, 특히 중국은 자체 브랜드뿐 아니라 로레알(L'Oréal) 등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가 위치해 있어 중국산으로 분류된 글로벌 브랜드 제품도 수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 인지도와 선호도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로레알 파리(L'Oréal Paris)와 미국의 레브론(Revlon)은 다양한 제품군과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확고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고, 한국산 제품은 2024년 기준 수입국 4위를 기록하며 K-뷰티 이미지와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입지를 지키고 있다. 향후 베트남 염색약 시장은 글로벌 브랜드와 아시아산 저가 브랜드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 구조를 보면 소매 부문이 전체의 99.9%를 차지하며, 그중 오프라인

소매(87.6%)가 핵심이다. 특히 식료품 소매점(69.1%), 소규모 현지 상점(35.3%), 슈퍼마켓(21.9%)을 중심으로 염색약이 일상 소비재처럼 유통되고 있으며, 건강·뷰티 전문점(17.6%)과 직접판매(0.5%)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이커머스(12.2%)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채널에 비해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염색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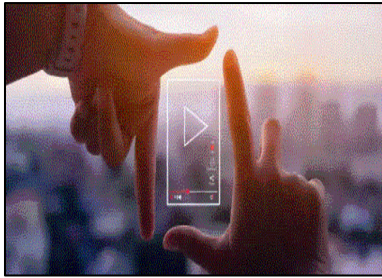
베트남 뷰티케어업체 Padaha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18세에서 45세 사이 여성의 약 68%가 염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머리색 전체를 염색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옴브레, 발리아주, 로우라이트 등 다양한 염색 기법을 활용한 헤어스타일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기 위해 다채로운 색상과 스타일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염색 제품의 품질과 함께 염색 전후의 모발 케어 기능 또한 중요한 구매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염색제와 트리트먼트, 샴푸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한 염색 키트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는 염색 효과와 모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율 및 인증

염모제는 HS Code 3305.9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베트남 수입 시 ‘한-베트남 FTA(VKFTA)’를 통해 관세율 0%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해당 품목이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적용되며, 수출자는 이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베트남에서 염모제는 시행규칙 Circular No. 06/2011/TT-BYT에 따라 화장품(Cosmetic)으로 분류되며, 수입 전 보건부 산하 약품관리국(DAV)에 제품 등록을 완료해야 유통이 가능하다. 이는 수입 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전 인증 및 행정 절차에 해당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통관 지연이나 유통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시사점

베트남 염모제 시장은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는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전체 모발 염색 이외에도 옴브레 등 다양한 염색 기법과 염색 후 모발 케어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트리트먼트나 저자극 기능성 제품을 포함한 염색 키트, 모발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강조하는 제품군으로 고품질 중심의 시장 접근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K-뷰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품질 신뢰도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포지셔닝은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다만, 베트남 시장은 여전히 글로벌 브랜드 중심의 강한 브랜드 충성도가 형성돼 있어, 한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과 함께 현지 소비자에게 친숙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제품 라인업 차별화뿐 아니라, 염색 효과 및 모발 보호 기능 등을 강조한 마케팅, K-뷰티 특유의 디자인 및 감성 요소를 결합한 콘텐츠 중심 전략 등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통 측면에서는 오프라인 유통망 비중이 여전히 절대적인 만큼, 대형 마트, 슈퍼마켓, 식료품점 등 생활밀착형 채널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이커머스 플랫폼과 SNS를 연계한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도 중장기 전략으로 고려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접근성과 온라인의 확산력을 함께 활용하는 복합 채널 전략을 통해, 한국산 염색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SNS 확산과 함께 진화하는 베트남 인플루언서 마케팅

- 베트남 인플루언서 마케팅, SNS 성장과 함께 소비자 구매를 이끄는 핵심 채널로 부상
- 2026년 광고법 개정으로 투명성 강화에 따른 기업 대응 필요성 증가

SNS 성장과 함께 확대되는 베트남 인플루언서 광고 시장

베트남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 마케팅 대행업체 INSG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구매자의 77%가 인플루언서 추천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라쿠텐 인사이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가 소셜미디어에서 최소 한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SNS의 폭발적 확산이 자리한다. 베트남의 소셜미디어 사용자 수는 2020년 4,425만 명에서 2024년 8,638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2029년에는 9,93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TikTok, Facebook, YouTube 등 주요 플랫폼이 일상 속 핵심 채널로 자리잡으면서 인플루언서 광고 시장 성장도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시장 규모는 2021년 5,129만 달러에서 2024년 8,702만 달러로 확대됐고, 2025년 9,968만 달러, 2029년에는 1억4,71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10.23%에 달하며, 2025년 기준 인터넷 사용자 1인당 인플루언서 광고 지출액도 1.07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SNS 이용률이 이미 71%를 넘어선 가운데 현지 기업의 97%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효과적인 도구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 베트남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내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 및 광고 현황

베트남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플랫폼별 특성에 따라 활용 전략이 달라진다. Facebook은 7,270만 명으로 가장 큰 이용자 기반을 보유하며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캠페인에 적합하고, TikTok은 6,772만 명과 67.4%의 광고 도달률을 바탕으로 숏폼 영상·라이브 커머스에서 높은 효과를 보인다. YouTube는 6,300만 명이 이용하며 리뷰·브이로그 등 장기 콘텐츠에 강점을 지니고, Instagram은 1,090만 명 규모지만 패션·뷰티 분야에서 20~30대 여성층 영향력이 크다. Zalo는 7,650만 명의 폭넓은 이용자를 확보했으나 개인 연락 중심으로 직접적인 마케팅 활용은 제한적이다. REVU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업의 78.3%가 TikTok을 주요 채널로 활용하고 있으며, Facebook(61.9%), Instagram(26.1%), YouTube(17.3%)가 뒤를 잇는다. 최근에는 라이브 커머스가 소셜 커머스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인플루언서들이 실시간 제품 시연과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베트남 내 인플루언서 마케팅 대행사 및 팔로워 규모 별 인플루언서 유형

다양한 SNS 플랫폼의 확산과 함께 베트남 내 인플루언서 마케팅 대행사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행사는 인플루언서 섭외, 콘텐츠 기획·제작, 프로모션 운영 및 성과 분석에 이르기까지 마케팅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소비자 신뢰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베트남 인플루언서는 팔로워 규모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영향력과 활용 사례가 다르다. 나노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참여율과 신뢰도가 높아 일상용품, 뷰티, 패션 등 특정 타깃층을 공략하는 데 효과적이고, 미드티어 인플루언서는 도달률과 신뢰도의 균형을 갖춰 트렌디한 제품 캠페인에 적합하다. 반면 매크로와 메가 인플루언서는 전국 단위나 글로벌 브랜드 홍보에 활용되며, 대규모 도달력과 대중성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제품 마케팅에 강점을 가진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주요 트렌드

베트남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AI 기술 적용과 플랫폼 쇼핑 기능 강화가 두드러진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AI는 콘텐츠 제작, 게시 일정 관리, 성과 분석에 활용되며, 맞춤형 전략을 통해 인플루언서와 소비자 간 신뢰 구축을 지원한다. 현지 광고대행사 관계자는 “효과 측정이 정교해진 만큼 기업들이 ROI를 더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어, 단순 팔로워 수만으로는 경쟁력이 없어진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브랜드들은 단순 노출 중심에서 성과 기반의 전략적 협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성과는 제품군과 소비자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뷰티와 패션은 TikTok과 Instagram에서 시각적 콘텐츠를 통해 여성 소비자의 구매를 이끌고, 건강기능식품과 식음료는 숏폼·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일상성을 강조하며 반응을 얻고 있다. Statista에 따르면 여성은 뷰티, 패션, 식음료, 건강기능식품에서 높은 구매 비중을 보였고, 남성은 전자기기, 가전, 스포츠용품, 게임 등 기능 중심 제품에서 구매율이 높았다. YouTube나 Facebook의 리뷰·언박싱 영상처럼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는 콘텐츠는 특히 남성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사점

베트남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단순한 광고 단계를 넘어 소비자의 일상과 구매 습관 속으로 깊이 스며들고 있으며, 인플루언서는 신뢰할 만한 정보원이자 동경의 라이프스타일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숏폼 영상, 라이브 커머스, 팬덤 커뮤니티는 제품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핵심 채널로 부상하고 있고, 참여와 체험 중심의 전략적 기획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광고법(법률 제 75/2025/QH15호)」 개정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강화한다. 새로 신설된 제15조에 따라 화장품·건강식품 등을 홍보할 때는 실제 사용 경험을 입증하고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광고주 신뢰성 검증과 자료 보관 의무도 부과된다. 허위·과장 광고 적발 시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공동 책임을 지게 되고, 팔로워 50만 명 이상 보유 인플루언서는 광고 전 반드시 제품을 직접 체험해야 한다. 또한 외국 기업은 베트남 내 등록된 대행사를 통해서만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됐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관리 부담을 높일 수 있으나 동시에 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성과 측정 체계를 정교화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 세분화에 따른 맞춤형 메시지와 콘텐츠 기획은 향후 브랜드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여성 위생용품 시장 동향

- 베트남 여성 위생용품 시장, 일본·미국계 브랜드 주도 속 중국·아세안 저가 제품 확산
- 한국 기업, K-컬처 연계·온라인 전용 전략 등 차별화 통한 시장 공략 필요

시장동향

베트남에서는 위생과 편리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선호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장시간 사용에도 피부 자극이 적고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하는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도시화와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도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하며, 일회용 생리대, 팬티라이너 등 다양한 제품군의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여성 위생용품 판매액은 2019년 3억3730만 달러에서 2024년 4억7770만 달러로 약 41.2% 성장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7% 내외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2029년에는 7억32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확대될 것임을 보여준다.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HS Code 9619.00은 생리대, 탐폰, 라이너 등 여성 위생용품뿐 아니라 성인·유아용 기저귀까지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여성 위생용품 수입액을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IHS Markit Connect Global Trade Atlas(GTA)에 따르면 2024년 베트남의 위생용품 주요 수입국은 중국과 일본으로, 중국산 제품이 1억4,788만 달러(점유율 70.7%)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은 4,760만 달러(22.8%)로 뒤를 이었다. 태국(2.9%), 인도네시아(1.8%), 한국(0.7%)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한국은 수입 5위국으로 비교적 낮은 점유율을 보였다. 전체 수입 규모는 2022년 2억1,065만 달러에서 2023년 1억9,213만 달러로 감소했다가 2024년 2억906만 달러로 소폭 회복했다. 최근 3년간 중국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일본은 하락세를 보였고, 한국산 제품은 2022년 2,128만 달러(1.0%)에서 2024년 1,389만 달러(0.7%)로 절대 규모와 점유율 모두 낮아졌다. 이는 가격 경쟁력과 유통망을 확보한 중국산 제품, 브랜드 인지도와 품질 신뢰도가 높은 일본산 제품에 비해 한국산 제품의 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경쟁 동향

베트남 여성 위생용품 시장은 다이애나(Diana)와 코텍스(Kotex)가 주도하고 있다. 다이애나는 로컬 브랜드로 출발했으나 2011년 일본 유니참에 인수돼 박닌성 공장을 거점으로 전국 유통망을 통해 점유율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코텍스는 미국 김벌리클라크의 브랜드로 1990년대부터 베트남에 진출했으며, 현재 빈즈영성 공장에서 현지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 두 기업 모두 대형마트·편의점 등 오프라인 유통망은 물론 온라인 채널을 통해 여성 소비자에게 가장 친숙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한편 소피(Sofy), ABC, 좋은느낌 등은 현지 생산 거점 없이 수입을 통해 유통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대도시와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유기농·항균 제품 등 차별화된 수요를 겨냥하고 있다.

유통구조

베트남 여성 위생용품 시장은 여전히 오프라인 소매 중심으로, 2024년 기준 전체 유통의 92.8%를 차지한다. 이커머스 비중은 7.2%로 낮지만 온라인 쇼핑 확산과 젊은 소비자의 디지털 구매 선호 증가에 힘입어 성장 잠재력이 크다. 오프라인에서는 식료품 소매점이 90.2%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그중 슈퍼마켓이 28.3%로 가장 큰 판매 채널로 자리 잡았다. 편의점과 하이퍼마켓은 각각 5.5%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소규모 현지 상점은 전통적 유통 채널임에도 현대적 유통망 확산으로 비중이 점차 줄고 있다. 또한 건강·뷰티 전문점 중심의 비식료품 소매점도 확대되는 추세다. 가디언, 메디케어 등 드럭스토어 체인이 화장품과 함께 여성 위생용품을 취급하며 젊은 소비자의 이용이 늘어나, 위생용품이 건강·뷰티 제품군과 연계해 판매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관세율 및 관련 규제

HS Code 9619.00에 해당하는 여성 위생용품은 일반 수입세율이 22.5%에서 최대 30%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AKFTA)'와 '한-베트남 FTA(VKFTA)'를 활용할 경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관세율 0%가 적용되며, 이를 위해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반 수입세율 대비 관세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다. 아울러 베트남은 여성용 생리대에 대한 국가표준을 적용해 위생, 안전성, 흡수력 등 최소 품질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 라벨링 관련 법령(Decree No. 43/2017/ND-CP)에 따라 제품명, 제조자명, 원산지, 성분, 사용방법, 경고문 등을 반드시 베트남어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여성 위생용품 수출 시 품질 인증과 적합성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관 과정에서 샘플 검사나 무작위 품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사점

베트남 여성 위생용품 시장은 오랜 기간 현지에 기반을 구축한 일본계와 미국계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수입 통계와 시장의 흐름을 고려하면 중국 및 일부 아세안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을 앞세워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낮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상거래와 SNS를 활용한 온라인 판매 확대 또한 주요 전략으로 관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경우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K-컬처와 연계한 브랜드 스토리 구축이나 현지 여성 소비자와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 마케팅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편의점과 온라인 유통망을 겨냥한 소용량 및 온라인 전용 제품 출시를 통해 접근성을 확대하고, 기부 등 사회공헌 캠페인을 통해 신뢰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스토리와 신뢰를 중심으로 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 이미 포화된 베트남 여성 위생용품 시장에서 입지를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정부, 부품·소재 산업 육성 위한 신규 정책 발표

베트남 정부는 기술, 인력, 토지, 행정절차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전략을 추진 중. 현재 베트남에는 약 5천 개의 지원산업 기업이 존재하지만, 이 중 1차 공급업체는 100여 개에 불과한 상황. 기술력 부족과 자본난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FDI 기업과의 연계는 여전히 미흡하며, 고부가가치 부품 생산 역량에도 한계 존재.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최대 70%를 지원하고, 기술이전 및 인력양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를 기대.

[Vietnam Plus 7.29]

▶ 2025년 상반기 베트남 자동차 수입 급증

2025년 상반기 베트남의 완성차 수입은 102,8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38.3% 증가. 이 중 9인승 이하 차량이 78,345대(+29.4%), 트럭이 12,362대(+124.3%)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음. 주요 수입국은 태국(6,503대, +36.2%), 인도네시아(6,498대, -25.3%), 중국(4,816대, +19%)이며, 세 나라가 전체 수입의 95%를 차지함.

[Bao KTMT 7.29]

▶ 베트남, 동남아 2위 데이터센터 투자 수익률 기록

2025년 상반기 베트남에서는 대규모·초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급증하며 투자 붐이 조성됨. 투자수익률은 17.5~18.8%에 달하고 개발비용은 MW당 710만 달러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외국인 100% 투자가 허용되고 AI·클라우드 수요 증가로 시장 규모는 2030년 1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전력과 인프라 한계가 존재하나 5~10년 내 동남아 데이터 허브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됨.

[Vn Economy 7.29]

▶ 2025년 목표인 8.3~8.5% 경제성장을 달성 위해 총력

베트남은 투자·소비·수출 등 전통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정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ADB와 스탠다드차타드는 6%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나 정부는 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함. 공공투자 집행 가속, 소비 진작, 대미 수출 협상 등을 통해 하반기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부가세 인하와 소득공제 확대 등 재정 완화 정책으로 내수 활성화를 추진 중임.

[Vietnam Plus 7.29]

▶ 베트남-미국 첫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 출범... 디지털 무역 촉진

2025년 8월 8일 호치민시에서 베트남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첫 국제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 VietnamUSA.Arobid.com이 출시됨. 해당 플랫폼은 가상 전시와 국경 간 거래 기능을 통합하고 데이터 추적성과 ESG 평가를 반영해 미국 시장의 높은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음.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이자 두 번째 무역 파트너로, 양국 수교 이후 수출액은 300배 증가해 2024년 1,320억 달러에 달함. 그러나 최근 미국이 일부 베트남 수출품에 20%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기존 유통망 의존을 줄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거래 모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플랫폼 회장 아로비드에 따르면, 플랫폼은 디지털화·자본·ESG 준수라는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 진출 3대 장벽을 해소하고 미국·싱가포르 물류 파트너와 직접 연결해 비용 절감과 배송 최적화를 지원할 예정임.

[Vietnam News 8.9]

▶ 호치민 편선넛공항, ‘비엳젯항공 제외’ 전 항공사 국내선 3터미널 이전

비엳젯항공(VJC)을 제외한 베트남 주요 항공사들이 다음 주부터 호치민 편선 공항 3터미널로 이전해 국내선 운항을 시작함. 현재 베트남항공(HVN)만 이용 중이지만 땀부항공(18일), 퍼시픽항공·바스코(19일), 비엳트래블항공(21일)이 순차적으로 이전하면서 3터미널 이용 항공사는 5곳으로 늘어남. 땀부항공은 터미널 변경으로 인한 불편을 고려해 18~25일 출발편에 한해 무료 항공권 변경을 지원함. 지난 4월 개장한 3터미널은 11조 동이 투자된 연간 2,000만 명 수용 규모로, 공항 전체 수용 능력을 5,000만 명까지 확대했으며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음.

[InsideVina 8.14]

▶ 베트남, 10월부터 ‘통행료 계좌→비현금결제’ 전환 의무화…무정차요금소 이용불가

베트남 정부는 시행령 119호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기존 통행료 계좌를 비현금 결제 수단과 연동된 교통 계좌로 전환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임. 전환하지 않으면 차량은 무정차 전자요금소(ETC)를 통과할 수 없음. 통행료 계좌가 단순히 통행료 납부에 한정된 반면, 교통 계좌는 은행계좌·전자지갑·신용카드와 연동돼 주차, 차량검사, 주유,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서비스 결제가 가능하며, 충전 없이 연동 계좌에서 자동 차감돼 편의성이 높음. 현재 VETC는 자체 지갑과, e패스(ePass)는 비엠텔머니(Viettel Money)와 연동해 서비스를 제공 중임. 전환 절차는 사용 앱에서 IC칩 기반 공민증 인증 후 은행계좌나 전자지갑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InsideVina 8.14]

▶ 베트남, 2030년까지 연매출 10억달러 국영기업 30곳 육성 목표

베트남 재정부는 2030년까지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 국영기업 30곳을 포함해 대기업을 대거 육성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 기업을 20곳 이상으로 확대하며 민간기업을 200만 개까지 늘릴 계획임. 현재 포춘 ‘동남아 500대 기업’에 베트남 기업 76곳이 포함돼 있으며 다수 국영기업이 상위권에 있음. 2023년 기준 국영기업 671곳의 총자산은 2,120억 달러, 총매출 1,249억 달러, 세전이익 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함. 정부는 2030년까지 1인당 GDP 8,500달러 달성과 물가상승률 44.5% 관리, FDI 유치액 2,000억~3,000억 달러를 목표로 함.

[InsideVina 8.22]

▶ 연중 ‘원자력발전소’ 자금조달 계약 체결 추진

베트남 정부는 닌투언성 원전 1호기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계약을 9월까지 체결하고, 2호기는 올해 말까지 협상을 완료할 계획임. 원자력법 개정과 인프라 개발, 인력 교육 계획이 진행 중이며, 부패 방지 및 안전 감독을 위해 2026년 부처 간 태스크포스를 설립할 예정임. 원전 건설 사업은 2016년 중단 후 지난해 재개가 결정됐으며, 2030년까지 원전 완공과 가동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음.

[The Investor Vafie Magazine 8.24]

▶ 빈스피드, 호치민 꺀저 고속철도 연내 착공 추진…최고속도 350km/h

빈그룹은 자회사 빈스피드를 통해 호치민~꺀저 48.5km 고속철도를 올해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총사업비는 76조 동(약 28억 8,000만 달러)으로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며, 노선은 최고 350km/h로 설계됨. 전문가들은 기술·운영 난관과 꺀저 맹그로브 보전지역 환경 문제를 주요 과제로 지적함. 한편 호치민시는 2035년까지 355km, 2045년까지 510km 도시철도망 구축을 추진 중임.

[InsideVina 8.25]

▶ 2026년부터 내연차 에탄올혼합유 사용 의무화 추진

베트남 공상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에탄올 10%를 혼합한 E10 바이오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를 E10으로 제한할 계획임. 2031년부터는 E15 또는 이에 준하는 바이오연료로 전환하며, 에너지 안보 및 생산 능력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제 마련 예정임. 2025년 8월부터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등 주요 도시에서 E10 시범 판매를 시작했으며, 환경세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 중에 있음.

[Vietnam Net 8.25]

▶ 하노이, 호치민시 2027년 하반기부터 이륜차 배출가스 규제 추진

베트남은 2027년 7월부터 하노이와 호치민을 시작으로 오토바이 배출가스 검사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임 (다른 주요 도시는 2028년, 지방은 2030년부터 규제 적용). 배출가스 규제는 차량 제조연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적용되며, 2030년부터 주요 도시 이륜차는 최소 2단계 기준을 충족해야 함. 베트남 농업환경부는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를 기준으로 한 배출가스 국가표준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각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Vietnam.vn 8.26]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Lake Yen My 1 Floating Solar Plant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

2.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Minh Thach D&L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프로젝트	■ 현장위치 : Yen My Commune, Nong Cong Dist.; Thanh Ky Commune, Nhu Thanh Dist.; and Phu Son Commune, Nghi Son Town, Thanh Hoa Province, Vietnam ■ 프로젝트 진행상황: Pre F/S ■ 프로젝트 내용: ➢ Land and water surface are: 123.57 ha ➢ Capacity: 80MW (103 MWp) ➢ Grid connection plan: Construction of 220kV double-circuit transmission line from the 22/220kV step-up substation of the Yen My 1 Floating Solar Power Plant, connected to the existing 220kV Nong Cong – Nghi Son transmission line. The line will use ACSR 2x330 conductors and will be approximately 1km in length. ➢ The project's operating period: 50 years from the date of the investor approval decision. ■ 세부일정: ➢ Q2/2025: Approval into PDP 8 Master Plan ➢ Q3/2025: Investment policy approval ➢ Q1-Q2/2026: Bidding ➢ Q2/2026: Construction commencement ➢ • Q1/2027: COD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28)] 美 정부 『AI 행동계획』 행정명령 발효 - 주요내용 및 현지 반응

- ◇ 트럼프 정부, AI 행동계획을 수립하고(7.23) 관련 행정명령 3건 발효
- ◇ 미국 AI 수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 구축 강화 목적
- ◇ AI 규제 완화, 데이터센터 등 신속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 망라
- ◇ AI 산업 선도를 위해 '풀 스택'(full-stack) 접근 방안에 주목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29)] 美 미소기준(De Minimis) 면세 중단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 트럼프 대통령, 모든 국가 수입품 대상 미소기준 면세를 중단하는 행정명령 발표
- ◇ 국가별 IEEPA 관세율에 따라 종가세 또는 종량세 방식으로 관세 부과 예정
- ◇ 미소기준 혜택 중단으로 전자상거래 기업과 물류업체, 통관 업무에 큰 영향 예상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30)] 미 폴리실리콘 232조 조사 관련 의견수렴 주요 내용

- ◇ 미 상무부, 폴리실리콘 수입 232조 조사 착수 및 의견수렴 진행
- ◇ 교역국 및 산업계는 공급망 불안·비용 상승·WTO 위반 우려 표명
- ◇ 미 정치권 및 일부 업계는 대중 의존도 축소와 자국 제조업 보호 필요성 강조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美, 추가 관세부과 대상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보 공식 발표(8.19)

- ◇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 50% 관세 부과 시행 중(6.4일~/Proclamation 10947)
- ◇ 대상 파생상품목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해 50% 관세부과, 나머지 미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부과
- ◇ 美 현지시각 8.19.(화), 상무부 관보에 관세부과 대상 추가 파생상품을 공식 발표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31)]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자립 정책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 ◇ 미중 긴장 완화 속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회복, 미국은 공급망 자립 본격화
- ◇ 희토류 공급망 자립 가속화 위해 보조정책과 민관협력 다각화 추진
- ◇ 정부 주도 정책에 대해 현지 업계와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 공존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베트남서 돌보인 韓 재난안전 기술력...270억원 규모 계약 체결

행안부, 베트남 씨큐텍 박람회서 통합한국관 운영 ...

베트남에서 열린 재난안전산업 전시회에서 국내 기업들이 약 270억원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



행안부는 이달 14~16일 베트남 호찌민 사이공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베트남 씨큐텍 박람회'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했다. 베트남 씨큐텍 박람회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재난안전산업 전시회로, 올해 베트남 총리를 비롯해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기업인, 바이어 등 약 1만7천여명이 방문했다. 이번 통합한국관에는 국내 25개 유망 재난안전기업이 참여해 소방, 방재, 생활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박람회 기간 현지 바이어 등과 총 447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 결과, 약 270억원에 달하는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특수 소방차 제조업체 진우SMC는 베트남 국영기업인 탕롱 컴퍼니(Thanglong Company)와 무인 파괴 화재 진압 방수차 5대 등 약 85억원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현지 기업과 제품 구매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도 7건 체결됐다. 소방 설비 제조업체인 파이어버스터Lab은 베트남 설계·시공업체 등 4개사와 고출력·고압 스프링클러 시스템 활용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행안부는 국내 유망 재난안전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과 기술협력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 일본 최대 규모의 재난안전 산업전시회인 '2025 도쿄 위기관리산업전'에도 통합한국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출처 : 연합뉴스 , 2025.8.24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를 건설한 회사, 하나건설의 베트남 발자취

선병수 CEO

1. 하나건설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하나건설(HANA E&C; www.hana-enc.com)은 2013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기업(FDI)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하나건설 창업자(한치옥)는 2001년 한국에 있는 엠앤이 건축사사무소의 베트남 지사장으로 부임하여 하노이 경남 랜드마크타워, 다낭 스포츠센터, 후에 종합병원 등 크고 굵직한 건축공사의 설계, 감리, CM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2009년 전후 삼성전자 박닌 공장이 가동할 시점에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물밀 듯 베트남으로 진출하여 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여러 진출업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자가 공장을 건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하나건설을 설립하여 시공 업무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건설의 기업 슬로건은 “우리는 신뢰를 건설한다.”이며, 품질경영을 최고의 기업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건설은 고객의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며, 고객의 신뢰는 품질경영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건설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건설은 창사 이후 총 41건의 설계와 52건의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산업분야 1종 공사 면허를 가진 종합 건설사이며, 무분쟁, 무사고, 무부실채권, 무금융부채의 원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 지역에 학교를 건설하고, 전국 바둑대회 개최를 통해 베트남에 바둑 보급에도 힘 쓰고 있습니다.



<하나건설은 베트남 흥옌성에 위치한 (유)Woonyoung Vina 프로젝트를 설계와 시공으로 완료한 건설 사업. 하나건설 제공>

2.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나건설은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공장 건축공사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객 범위를 중국 기업, 대만 기업, 베트남 기업으로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한국의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효성 등을 따라 베트남에 동반 진출하였고, 또한 일찍이 저임금을 바라보고 중국으로 진출했던 봉제, 섬유 분야의 한국 기업들도 중국의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자 베트남으로 넘어왔습니다. 한국 본토에서도 인건비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된 많은 제조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베트남으로 진출하였습니다. 하나건설은 이런 기업들이 요청하는 공장 건축과 관련된 부지 조사, 설계, 시공, 감리, CM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건설은 다른 건설회사와는 달리 자체 설계팀을 두고 있어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턴키(Turn-Key) 공사 방식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시공 전에 수행해야 하는 설계 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에 따라 건축물의 내구성, 기능성, 경제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다른 기후, 지질, 건축 기준 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건설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분석하여 가장 경제적인 설계 및 시공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3. 베트남 사업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회사가 속한 건설업 분야를 우선 설명해드리면, 비즈니스 환경이 과거에 비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한국 제조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많이 줄어든 반면 한국계 건설업체의 수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건설공사 입찰 시에 가격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제조업 분야를 보면, 근로자 인건비 상승과 함께 인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중국 기업들이 대거 베트남으로 진출함에 따라 기업 간 근로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건비가 또다시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값 싼 젊은 인력이 풍부한 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베트남 전역에서 제조업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지난 7월에 합의된 베트남의 대미 상호관세율 20%는 한국의 15%보다 높아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신규로 진출하는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이미 진출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들도 미국으로부터 오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4.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건설공사의 고객사는 입찰에 의해 최저 가격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입찰 시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와 낮은 가격으로 자재 및 장비 공급, 하도급 공사가 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건설은 하도급 업체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업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였습니다. 2020~2022년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는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당연히 건설공사 발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그 시기에 하나건설의 오랜 고객사였던 한 회사가 별도의 입찰절차 없이 두 건의 공사를 하나건설에 의뢰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고객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금언을 다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5. 베트남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에게 조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투자등록증명서(IRC)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IRC에는 한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형, 생산 제품, 투자비, 투자시기 등의 주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환경허가, 공장 신축 마스터 플랜 승인 등 매 인허가 단계에서 IRC 부합 여부를 체크합니다. 투자 기업의 신청 서류가 IRC와 부합되지 않은 경우 매번 IRC를 먼저 변경한 후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건설공사를 위해 여러 고객사를 접촉해 보면 공사 내용이 IRC와 부합되지 아니하여 IRC 변경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는 일이 빈번하므로 IRC 작성 시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올 해 들어 베트남 정부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많은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4일에 개정된 법인세법은 법인세 혜택 부여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령, 베트남 정부는 그간 국가공단(Khu Cong Nghiep)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법인세 감면 혜택(2년간 면제, 4년간 50% 감면)을 폐지하고, 업종별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제구역(EZ)이나 낙후 지역에 위치한 일부 지방공단(Cum Cong Nghiep)에 입주할 경우에는 법인세 혜택을 유지하고 있으니 법인세법 변경사항을 잘 이해하여 부지를 선정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점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들어가며

한국분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시는 경우 가장 먼저 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호텔이나 아주예외적으로 베트남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경우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가장 먼저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어 거주지를 마련하시고,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주소지 사용을 위해 오피스, 공장 등의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베트남 생활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베트남은 대부분 1~2개월 수준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면 한국과 달리 보증금이 매우 크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서 베트남 집주인들과의 갈등으로 큰 손해가 발생하시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사례 들을 바탕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 사례들

가. 임차료 상승 한도 부존재

베트남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상승에 관한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계약 기간 종료시 임대인이 임대료를 매우 크게 상승시키는 것이 위법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상 임대료 상한 폭을 제한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나. 계약갱신요구권 부존재

역시 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보다는 상가, 오피스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테리어 비용 /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상회복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오히려 원상회복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 가능성

보증금이 크지 않다는 점은 임대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 기한이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사한지 2~3개월이 채 되지않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 사유는 본인이 거주한다는 이유, 임차인의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이유, 시끄럽다는 이유, 임대인의 변심 등 중대하지 않은 이유들로 임대인이 임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반환에 더불어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나, 지급된 계약금이라도 적절히 반환받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 외 이사비용 등은 전혀



보상받지 못하며, 임차인이 퇴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아파트 출입카드 정지, 전기, 수도 공급 중단 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방안으로 임차인을 괴롭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 등의 부존재

임대인이 위와 같은 일방적 횡포를 부리는 경우 임차인이 이에 대응할만한 적절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 1~2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증금만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하니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 수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보상 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은 집주인으로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매우 중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어 임차인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 기타 계약상 문제들

- 식당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시는 경우 계약서에 임차인의 사업시간에 제약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9시 이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와 같이 임차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접근 권한에 대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접근권한에 대한 적절한 제약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 관리 등을 사유로 수시로 임차인의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관련 : 소비재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계약 기간을 2년 등과 같이 짧게 하는 경우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상승에 제한이 없어 장사가 잘되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얻기 위해 임차인을 내쫓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서상 원상회복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임차인은 원상회복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신이 정성들여 꾸며 놓은 사업장을 그대로 임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임대계약기간 설정시 적절하게 장기의 임차계약을 책정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18탄

동아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엄 진용 회계사입니다. 지난 달 7월 중요한 세법 내용들이 개정, 발효 되었는데 우선 법인세를 살펴보았으며 이번 호에서는 부가세법의 주요한 개정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베트남 부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주요사항

2024년 11월 26일, 베트남 국회는 부가세법(" Value Added Tax ") Law No. 48/2024/QH15를 제정, 발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부가세법을 보다 구체화한 2025년 7월 1일자 시행령 Decree No. 181/2025/ND-CP 및 2025년 7월 1일자 시행규칙 Circular No. 69/2025/TT-BTC를 발효하였습니다.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전면적으로 새로 발표된 법령은 아니고, 기존 법령들의 일부 조항을 보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정기세무조사 또는 부가세 환급조사시 특정사안에 대해 일정 수준에서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혼선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 (일반 개정사항)

1) 납세자 규정 보완

Law No. 48/2024/QH15의 제4조는 기존 2008년 부가가치세법 제4조 대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 활동 사례를 납세자 범위에 추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공급자가 베트남 내 조직 및 개인과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이하 "해외 공급자").
- 해외 디지털 플랫폼을 관리하는 조직은 해외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 의무를 공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베트남 내 사업 조직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을 공제 방식으로 적용하고, 해외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거래소 또는 디지털 플랫폼의 관리자인 조직은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 및 개인을 대신 하여 결제, 세금 신고 및 납부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조정

Law No. 48/2024/QH15의 제5조는 2008년 부가가치세법 제5조 대비,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 기업과 협동조합이 가공되지 않았거나 일반적인 예비 가공만 거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어업 제품을 구매 하여 다른 기업 및 협동조합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입세액은 공 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 현행 규정상 일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 제외되었습니다.
 - 비료, 농업 생산용 특수 기계 및 장비, 원양 어선.
 - 증권 예약, 증권 거래소 또는 증권 거래 센터의 시장 조직 서비스, 기타 증권 사업 활동 등.
- 채굴 및 가공된 자원과 광물이 포함된 수출 제품 중 정부가 정한 목록에 포함하는 제품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원 및 광물 가치와 에너지 비용의 합이 제품 원가의 51% 이상인 가공 제품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 정부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예방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수입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완되었습니다.
- 사업자 및 개인의 연간 부가가치세 비과세 매출 기준이 1억 동(VND)에서 2억 동(VND)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또한 2024년 부가가치세법은 증권 거래, 파생 상품, 국방 및 보안 제품 등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타 법률과 일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습니다.



3) 과세 가격 규정 개정 및 보완

Law No. 48/2024/QH15의 제7조는 2008년 부가가치세법 제7조 대비, 과세 가격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했습니다.

- 수입품에 대한 과세 가격 규정을 수출입세법을 준수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기존 2008년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수입품의 과세 가격을 국경 통과 시 수입 가격에 수입관세(있는 경우), 특별소비세(있는 경우), 환경보호세(있는 경우)를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수입품의 과세 가격을 수출입세법 규정에 따른 수입 과세 가치에 수입관세, 법률 규정에 따른 추가 수입관세(있는 경우), 특별소비세(있는 경우), 환경보호세(있는 경우)를 더한 금액으로 개정했습니다.

- 부동산 사업 활동에 대한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공제되는 토지 가격, 베트남 전력 그룹의 전기 생산 활동, 운송, 하역, 투어 형식의 관광 서비스, 전당포 서비스, 출판사 정가(표지 가격)로 판매되는 부가가치세 대상 도서 등 특정 생산 및 사업 활동에 대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규정이 현행 상황에 맞게 보완되었습니다.

4) 일부 상품 및 서비스의 세율 조정

Law No. 48/2024/QH15의 제9조는 일부 상품 및 서비스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① 0% 세율 적용 대상 추가

- 국제 운송.
- 해외, 면세 구역 내 건설 및 설치 작업.



- 출국 절차를 완료한 개인(외국인 또는 베트남인)에게 격리 구역에서 판매되는 상품,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상품
- 수출 서비스: 베트남 영토 외부에서 사용되는 차량 렌탈 서비스, 국제 운송을 위해 직접 제공되거나 대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항공 및 해상 서비스.

② 비과세 대상에서 5% 세율로 전환된 제품

- 비료.
- 바다의 어선.

③ 5% 세율에서 10% 세율로 변경된 제품

- 가공되지 않은 산림 제품.
- 설탕, 당밀, 바가스, 슬러지 등 설탕 생산 부산물.
- 교육, 연구 및 과학 실험을 위한 전문 장비 및 도구.
- 문화 활동, 전시, 체육 및 스포츠, 예술 공연, 영화 제작, 영화 수입, 배급 및 상영.

5) 매입세액 공제 조건 개정 및 보완

Law No. 48/2024/QH15의 제14조는 2008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대비, 매입세액 공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했습니다.

① 사업체가 신고 또는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 대한 규정 개정하였습니다.

사업체가 신고 또는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을 발견한 경우, 세무 당국 또는 관할 기관이 세무감사 또는 세무검사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공되지 않은 산림 제품.
- 추가 신고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신고해야 하며, 납세자는 증가된 납부 세액을 전액 납부하거나 상응하는 환급 세액을 회수하고 국고에 연체료(있는 경우)를 납부해야 합니다.
- 추가 신고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거나 다음 달 또는 분기로 이월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액만 증감하는 경우: 발견된 기간에 신고합니다.

②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을 법인세 계산 비용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고정 자산의 원가로 계산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③ 직원을 위한 고정 자산을 구성하는 상품 및 서비스, 자산 형태로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 또는 개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송장을 통해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을 위해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9인승 이하 승용차인 고정 자산, 폐쇄 생산 및 중앙 회계를 가진 생산 및 사업체 등의 경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규정을 정부 규정에 따라 보완했습니다.

④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비현금 결제 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 조건이 충족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2008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한 번에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가치가 2천만 동(VND)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해 비현금 결제 서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매 상품 및 서비스에 비현금 결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⑥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건에 일부 서류(포장 명세서, 선하 증권, 화물 보험 서류(있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6) 부가세 환급 사례 추가

Law No. 48/2024/QH15의 제15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한 부가세 환급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 5% 세율의 부가가치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만 생산하고 공급하는 사업체의 경우, 12개월 또는 4분기 후에도 전액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이 3억 동(VND) 이상이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 후 다른 국가로 재수출하는 상품은 세금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조건부 투자 및 사업 분야의 사업체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법 규정에 따른 사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운영 중 충분한 사업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 시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 환급 조건, 납세자 및 세무 당국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맺음말

다음호에서도 동일하게 새롭게 개정된 부가세 법령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입 후 재수출 시 관세 정책

FTA활용지원센터 이여람 관세사

2025년 8월 5일, 베트남 관세국은 2025년 6월 17일자 질의 문서(문서번호 123/2025/LGEVH)에 대한 회신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질의는 수입 원자재의 사용 목적 변경, 재수출 및 이에 따른 세금 환급 가능 여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관세국은 17615/CHQ-NVTHQ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1.세금 환급 대상

수출세 및 수입세법 제107/2016/QH13호 제19조 제1항에 따른 수출세 및 수입세 환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동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A, B, C호에 명시된 물품은 사용, 가공 또는 제조되지 아니한 경우에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 A. 납세자가 수입세 또는 수출세를 납부했으나 실제로 수입·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는 물품보다 적은 수량만 수입·수출한 경우.본 공문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B. 수출세를 납부했으나 해당 물품을 다시 수입해야 하는 경우, 납세자는 기납부한 수출세를 환급받으며, 재수입 시 별도의 수입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C. 수입세를 납부했으나 해당 물품을 재수출해야 하는 경우, 납세자는 기납부한 수입세를 환급받으며, 재수출 시 수출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D. 납세자가 생산·영업 활동을 목적으로 수입세를 납부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원재료·자재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한 경우.
- E. 납세자가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을 목적으로 임대, 건설, 설비 설치, 생산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도구·운송수단을 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해외로 재수출하거나 비관세 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또는 일시적 수입 후 재수출이 세관당국의 승인을 받은 조직·개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수입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되는 수입세액은 재수출 시점의 물품 잔존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베트남 내 사용 및 보관 기간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만약 물품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입세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한 최소 금액보다 낮은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2. 세금 환급 절차

(1) 준거 규정

세금 환급 절차는 「세무행정법」 제38/2019/QH14호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특히, 동 법 제73조 및 2020년 10월 19일자 「정부령」 제126/2020/ND-CP호 제22조에 따라 세금 환급 서류는 분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사후 검사

세무행정법 제77조에 따르면, 세무 당국은 세무 관리상 위험 원칙에 근거하여 세금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에 환급 대상 서류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수입세 환급 관련 규정

「정부령」 제134/2016/ND-CP호 제34조 제1항(2021년 3월 11일자 「정부령」 제18/2021/ND-CP호로 개정·보완)에 따르면:

수입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해야 하는 경우, 납부한 수입세는 환급되며 수출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재수출”에는 (a) 해외 반송, (b) 자유무역지대(비관세 구역) 반출, (c) 면세구역 내 사용을 위한 반출 등이 포함됩니다. 재수출은 원 수입자 또는 원 수입자로부터 위임·허가를 받은 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재수출 시 세관 신고서에 물품의 수량, 계약일자, 수출 상대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세관 당국은 이를 확인하고 환급 여부를 명확히 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세부 절차

납세자는 재수출되는 물품이 과거에 수입된 물품임을 전제로, 해당 계약 번호·계약일자·거래 상대방의 명칭 등 관련 정보를 세관 신고서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기재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관 당국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명확히 기록하여 세금 환급 절차의 근거로 활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부의 2021년 1월 22일자 재무부 회람 제06/2021/TT-BTC호 제12조에 따라 세금 환급 절차가 규정됩니다.

또한, 2015년 3월 25일자 재무부 회람 제38/2015/TT-BTC호 제21조 제2항 a.1목(2018년 4월 20일자 재무부 회람 제39/2018/TT-BTC호 제1조 제10항으로 개정)에 따라, 세관 신고인은 사용 목적 변경을 신고할 때 원래의 세관 신고 번호와 변경 사유(사용 목적 변경 또는 내수 전환)를 전자신고서의 ‘비고란’ 또는 서면신고서의 ‘기타 비고란’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 회사가 생산·영업용 원자재 및 물품(코드 A12)을 수입하여 수입세를 납부한 후 이를 해외로 재수출하는 경우, 해당 재수출 물품이 과거에 수입된 동일 물품임이 확인되고, 「수출입세법(법률 제107/2016/QH13호)」 제19조 제1항 c호 및 제2항, 「정부령 제134/2016/NĐ-CP호」 제34조(2021년 3월 11일자 「정부령 제18/2021/NĐ-CP호」 제1조 제17항으로 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 법률 제19조 제1항 c호의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B. 회사가 수출용 생산(코드 E31) 또는 생산·가공 목적(코드 E11, E15)으로 원자재 및 물품을 수입한 후, 사용 목적 변경(코드 A42)을 신고하고 수입세 및 관련 세금을 납부한 다음, 해당 물품을 다시 해외로 수출(코드 B13)하는 경우, 제3지역 세관은 회사의 환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심사해야 합니다. 재수출 물품이 과거에 수입된 물품으로서 사용·가공·처리되지 않았고, 사용 목적 변경 신고서에 명시된 물품으로 확인되며, 「수출입세법」 및 관련 법령·회람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률 제107/2016/QH13호 제19조 제1항 c호에 따른 세금정책이 적용됩니다.
- C. 세금 환급 서류 및 절차는 「세무행정법(법률 제38/2019/QH14호)」 제73조, 「정부령 제126/2020/NĐ-CP호」 제22조, 「정부령 제134/2016/NĐ-CP호」 제34조(「정부령 제18/2021/NĐ-CP호」 제1조 제17항으로 개정), 「재무부 회람 제06/2021/TT-BTC호」 제12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 D. 위의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수출입세법」 제19조 제1항 c호 및 「정부령 제134/2016/NĐ-CP호」 제34조(개정 포함)에 따라 수입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E. 「세무행정법(법률 제38/2019/QH14호)」 제77조에 따른 환급 후 검사는 환급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환급 서류에 위법·사기·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세관 당국은 세액을 확정하고 위반 사항을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3.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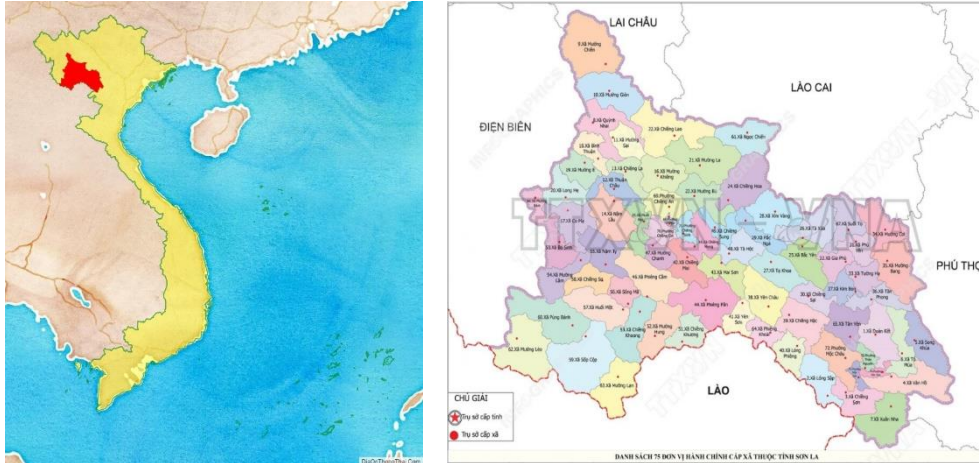
수입된 원자재를 재수출할 경우, 사용이나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입세 환급이 가능하며 수출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재수출 시 계약 정보, 수량, 거래 상대방 등 관련 사항을 세관 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세관 당국은 최대 5년 이내에 사후 조사와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수 전환이나 사용 목적 변경 시에는 원 세관 신고 번호와 변경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를 전자신고서 또는 서면신고서의 비고란에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환급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중요합니다.

베트남 북부 유망 투자지 - 선라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 면적 : 14,108.89 평방 킬로미터 - 인구 : 약 130만 명
지정학적 위치	선라성은 하노이에서 북서쪽 302km 거리에 위치하며, 서북 경제회랑과 국방·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요충지다. 베트남-라오스 국경선 274km와 인접 성들과의 접경 628km를 보유하고 있다. - 북쪽: 라오카이(Lao Cai)성, 라이쩌우(Lai Chau)성과 접경 - 동쪽: 푸토(Phu Tho)성과 접경 - 서쪽: 디엔비엔(Dien Bien)성 일부 및 라오스와 접경 - 남쪽: 타인호아(Thanh Hoa)성 및 라오스와 접경
접근성	- 선라성은 '하노이 - 선라 - 디엔비엔'을 연결하는 국도 6호선 축에 위치하고 있음. - 도로망: 국도 10개, 지방도 19개 / '화빈-목쩌우' 고속도로 건설 중 (선라 구간 우선 추진) - 수로 교통: 대(Da)강을 따라 운송, 타혹(Ta Hoc) 항구가 중심지 - 대중교통: 민간버스 노선 6개, 시외버스터미널 11개소, 공용휴게소 5곳.
GRDP 성장률 / 1인당 GDP	'24년 GRDP 성장률 : 6.3 % '24년 1인당 GRDP : US 2,198달러
경제규모 산업별 성장률	- 총 수출액 : US 1억 9,800만 달러 ('23년 대비 6.1% 증가) - 산업별 성장률 : 제조업/건설업(19.39%), 서비스업(6.42%), 농림어업(4.32%)
경제구조	- 제조업/건설업 : 32.02 % - 서비스업 : 40.48 % - 농림어업 : 21.94 %
인적자원	- 전체 사회 노동력 중 농업 종사자 비율: 62.9 %. - 직업훈련을 받은 노동력 비율: 61 %. - 학위·자격증을 보유한 노동력 비율: 26 %.
최저임금	-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선라성은 4개 구역으로 나뉨 - 최저 수준: 월 325만 동 (약 124달러) / 시간당 15,600동 (약 0.6달러) - 최고 수준: 월 468만 동 (약 178.6달러) / 시간당 22,500동 (약 0.86달러) - 기준 법령: 2022년 6월 12일자 제38/2022/NĐ-CP 시행령 - 훈련 노동자 임금: 지역별 최저임금 대비 최소 7% 이상 높아야 함.
외국인투자 ('24.12월 기준)	- 총 외국인투자: 7개 프로젝트, 총금액 : US 1억 5,360만 달러 - 한국 투자: 3개 프로젝트, 총 금액: US 851만 달러, - 한국은 투자 5개국 중 자본 규모에서 2위

투자환경



선라성의 위치 및 지도

➤ 교통 및 물류 인프라 우수함

(도로)

- ✓ 선라성은 총 연장 9,738km의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도로 밀도는 0.70km/km²(전국 평균은 1.79km/km²). 주요 국도 및 지방도 노선은 기본적으로 VIln-IIIln 등급 도로 기준 충족 현황임.

(고속도로)

- ✓ 화빈-목쩌우 고속도로(선라성 구간 32.3km)가 1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임. 폭 12m(2차선) 규모로 착공 (2024년), 4차선으로 토지 보상 및 확장 계획 수립, 2028년 완공 예정임. 총 투자 규모는 약 4조9,380억 동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한 공공투자 사업임. 또한, 성 인민위원회는 교통운송부에 목쩌우-선라 구간(약 105km)을 2026-2030년 중기 공공투자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함.

(수로)

- ✓ 다(Da)강을 따라 총연장 234km의 국가 내수로 노선이 있으며, 이 중 화빈 수력댐 구간 160km, 선라 수력댐 구간 74km로, 모두 III급 기준을 충족함. 베트남 내수로청에서 관리하고 있음. 또 다른 성내 주요 하천인 마(Ma)강에는 아직 수로 교통 노선이 형성되지 않았음.

(항공)

- ✓ 나산(Na San) 공항은 1978~1979년에 운영되었으나, 2004년 이후 운영 중단됨. 동 공항은 「전국 공항·비행장 종합개발계획(2021-2030, 2050년 전망)」에 포함되어 있으며, 내륙 국내공항(4C 등급)으로 2030년까지 연간 100만 명, 2050년까지 200만 명 수용 규모로 재건축 예정임. 현재 선라성 인민위원회는 교통운송부에 공항 투자·운영 사회화 방안(민관협력 PPP, BOT 방식)을 제출하여 총리 승인 절차를 진행 중임.

(항만)

- ✓ 현재 내수항 15개 중 4개가 건설 완료되어(27%), 이 중 타하(Ta Ha), 반켓(Ban Ket) 항만은 운영 중이며, 빠우온(Pa Uon) 항만은 2018년 여객선 터미널 기준으로 완공 및 허가를 받음.

➤ 관광 및 천연자원 (물, 토지, 광물 등)

- ✓ 선라성은 베트남 북서부 산간지방의 중심에 위치하며, 라오스와 274km에 이르는 국경을 접하고 있음. 도로와 수로 교통이 발달해 있으며 12개 민족이 함께 살아오며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이어온 지역임. 동굴과 폭포, 수력발전 호수, 온천 자원, 서늘한 기후까지 갖추고 있어 관광 개발 잠재력이 큼.
- ✓ 현재 선라성에는 총 96개의 문화·역사 유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특별 국가유적 2곳, 국가유적 16곳, 성급 유적 46곳, 기타 유적 32곳이 포함됨. 대표적인 명소로는 선라 감옥, 레타이동 왕 비문, 목리 요새, 투언쩌우 깃대, 나산 요새, 꺼너이 청년충원기념비, 항저이(박쥐) 동굴 등이 있음.
- ✓ 선라성은 12개 민족의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마을이 여전히 고유한 생활문화를 지켜오고 있음. 푸마우, 나바이, 타소, 한4·한5, 나떠우, 루엣 마을 등은 공동체 생태관광과 빈곤퇴치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 또한 고산 시장(랑쩌우, 꼬마, 독립절 장터 등)과 다양한 민족 축제(화반, 쉰반, 쉰므영, 심시, 기우제 등), 전통 민속놀이(배경주, 공던지기, 활쏘기, 줄다리기 등), 민속무용·음악(쏘에 춤, 샵춤, 우산춤, 팽과리춤, 민요와 시조 등), 특색 있는 전통 음식(꼬치구이 물고기, 대나무 밥, 찹쌀떡, 전통주 등) 역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주요 매력 요소임.
- ✓ 목쩌우 국립관광지는 2024년 4월 22일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결정(제1077/QĐ-BVHTTDL호)에 따라 공식 지정되었으며,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세계여행어워즈(WTA)에서 ‘세계 최고 자연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음.



레타이동 왕 비문



항저이(박쥐) 동굴

➤ 산업단지 우대정책

구분	투자지역/투자지구	법인세/수입세/토지세	감면및 면제기간
마이선 (Mai Son) 산업단지	사회·경제적 우대지역	1. 법인세 - 우대세율 : 법인세법시행 (2013년 12월 26일자 제218/2013/NĐ-CP호) 제15조 제1항 a목에 따라 15년간 법인세 10%의 우대세율 적용. - 세금 감면: 같은 시행령 제16조 제1항 a목에 따라 4년간 법인 세 면제, 이후 9년간 납부세액의 50% 감면.	
		2. 토지임대료 - 토지·수면 임대료 징수에 관한 시행령(2014년 5월 15일자 제46/2014/NĐ-CP호)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c 목에 따라, 토지 임대 결정일로부터 최대 3년간(기본 건설기간) 토지 및 수면 임대료 면제 - 이후 11년간 토지 임대료 면제.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투자

- ✓ 2024년 12월까지 누적 기준, 선라성은 총 7개의 FDI 프로젝트를 유치하였으며, 현재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 총 실현 자본은 1억 5,360만 달러에 달함.
- ✓ 신규 투자 프로젝트 현황으로는, Blackstone Minerals Limited가 판퐁(Tân Phong) 사회에 첨단 니켈 가공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제출하였음. 본 프로젝트는 128.55ha의 토지 사용과 약 1조 6,029억 VND의 총투자금이 소요될 예정임.

광빈성 10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총 투자액(\$)
반퐁(Ban Phuc) 니켈 광산 채굴 프로젝트	광물	호주	136,000,000
베트남-한국 고품질 과수·임목 생산 합작센터	농업	한국	1,500,000
반호(Van Ho) 첨단 농업 제품 저장·가공 공장	농업	한국	6,000,000
베트남 다끼이(Takii) 종자 유한회사 설립	농업	일본	1,800,000
베트남 사토엔(Satoen) 차(茶) 공장 프로젝트	농업	일본	4,000,000
차(茶) 재배 및 수출 가공 프로젝트	농업	대만	1,800,000
CJ CGV 베트남 유한회사 - 선라 지점	서비스	한국	1,010,000

➤ 한국투자

✓ 신규 투자 한국투자는 '24년 12월 기준 총 프로젝트 수 : 3건, 총 투자액: US 851만 달러

한국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액(\$)
베트남-한국 고품질 과수·임목 생산 합작센터	농업	한국	1,500,000
반호(Van Ho) 첨단 농업 제품 저장·가공 공장	농업	한국	6,000,000
CJ CGV 베트남 유한회사 – 선라 지점	서비스	한국	1,010,000

➤ 산업단지 현황

주요 산업단지 정보

산업단지명	설립연도	면적	주요 정보	개발자/인프라 투자자
마이선 (Mai Son) 산업단지	2019	150ha (1단계: 63.7ha) 진행 중	- 1단계 임대 완료 면적: 약 21ha - 입주율: 약 43% - 공용 인프라 임대료: 6,300동/m ² /년 - 유치 업종: 건축자재 제조업, 에너지, 농림 수산물 가공업, 식품, 약재, 생활용품, 첨 단 기술 산업 및 기타 산업	선라성 산업단지 관리 위원회 https://bqlkcن.sonla.gov.vn
반호 (Van Ho) 산업단지	N/A	216.6ha	현재 인프라 투자 유치 중	없음

✓ 반호 산업단지

- 반호 산업단지는 2021년 1월 4일자 총리 공문 제03/TTg-CN호에 따라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추가 승인됨. 선라성 인민위원회는 2022년 7월 29일 결정 제1292/QĐ-UBND호로 반호 산업단지 구역계획을 승인함.
- 산업단지 개요:
 - 위치: 선라성 반호현 반호읍. 하노이시 약 182km, 국도 6호선 약 3.2km, 호아빈-목쩌우 고속도로 약 12km 거리.
 - 규모: 총 216.6ha (산업용지: 134.6ha)
 - 노동력 규모: 약 2,500 ~ 4,000명
 - 총 투자 규모(예정): 약 USD 7,656만 달러

투자 유망분야

➤ 선라성은 경제·사회 발전 목표 달성, 재정수입 확대, 경제 성장 동력 창출, 고용 창출 및 사회 안정, 지역의 잠재력과 이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녹색·신속·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음.

➤ 업종/분야

1. 성장 모델 전환

- 산업의 녹색화 추진, 자원·에너지 절약·효율적 활용
- 순환경제 모델 적용, 과학·기술·디지털 기술 활용
-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통해 성장의 질 제고, 경쟁력 강화 및 환경 부정적 영향 최소화

2. 2030년 목표

- 디지털 경제 비중: GRDP의 약 15~20%
- 산림(경사지 과수 포함) 조성률: 50%
- 첨단 농업 비중: 농업 총생산의 30~40%
- VietGap, GlobalGap 등 기준 적용 면적: 39,700ha
- 절수 관개 적용 면적: 19,200ha
- GRDP 성장률: '21~'25년 연평균 7.5%, '26~'30년 연평균 약 8.5%

3. 농업·가공 중심지 구축

- 첨단 농업 적용 9개 지역 조성 및 인증 완료
- 서북부 지역 농산물 가공·유제품·과일·약초·관광 중심지 지향
- 국가 농업 첨단기술 연구·응용센터 설립 로드맵 연구

4. 관광 개발

- 2024년 목쩌우 국가관광단지로 승인 (결정문 1077/QĐ-TTg, 2024.4.22)
- 선라 수력발전소 호수 관광단지를 국가관광지로 개발 추진

5. 산업단지 투자 촉진

- 2025년까지 평균 가동률 60% 이상 달성 목표
- 마이선 산업단지(2단계): 100% 가동률 달성
- 반호 산업단지: 동시 인프라 개발 및 50% 가동률 달성 목표
- IoT·스마트 산업단지·디지털 산업단지 육성

6. 산업클러스터(소규모 산업단지) 개발

- 8개 입지 유리한 산업클러스터 조성
- 농림수산물 가공 중심 유치, 환경오염 최소화

7. 상업·물류 인프라

- 종합 슈퍼마켓(3등급 이상) 조성
- 주요 도시(치엥쑤, 목쩌우, 마이선, 푸옌)에 상업센터 개발
- 치엥크엉·롱삽 국경게이트 및 산업단지·산업클러스터에 물류센터 투자 유치

투자유치기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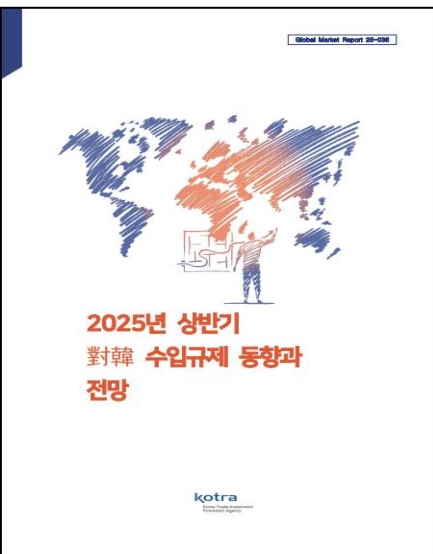
기관명	담당자	주소
선라성 투자무역 관광진흥센터	Mrs. Le Thi Hong Anh/ 센터장	Tel : +84-21-2385-6686 Email : xtdttmdlsl@gmail.com Website : ipc.sonla.gov.vn



2025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전략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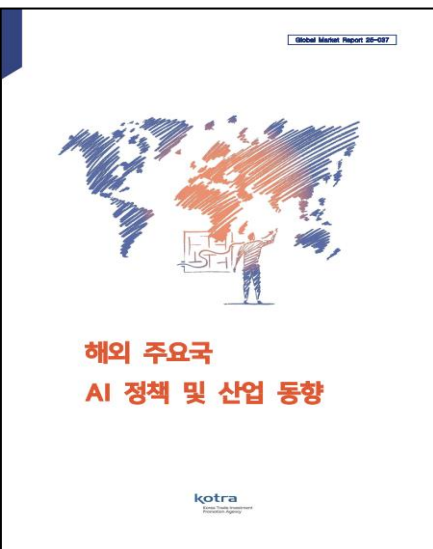
1. 글로벌 스마트시티 동향
2. 스마트시티 국가별 현황 및 정책



2025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총괄
2. 국가별 동향과 전망



해외 주요국 AI 정책 및 산업 동향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해외 AI 시장 동향
2. 주요국별 AI 정책 및 산업 현황
3. AI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 및 결론

2025 베트남 하노이 제3차 건축자재 전시회

전시회명	2025 베트남 하노이 제3차 건축자재 전시회 [VIETBUILD HANOI 2025 - Phase III]
개요	- 베트남 건축자재 전시회(VIETBUILD)는 베트남 건설부가 주최하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건축자재 전시회로 건축업자, 바이어 외에 정부기관 인사들도 많이 참석하고 한국을 포함한 약 20여개 국가의 기업들이 부스 참가함. - 본 전시회는 하노이에서 3회, 호치민에서 5회, 다낭에서 1회, 켄터에서 1회씩 베트남 전역을 순화하며 총 10회 개최하는 건축자재 전시회임.
개최기간	2025.09.24 - 2025.09.28
개최장소	National Exhibition Construction Center
개최규모	6000sqm(m ²)
웹사이트	https://vietbuildexhibition.com.vn/en/exhibitions/
산업분야	건축&기자재, 기타, 기계&장비
전시품목	건설, 건축자재, 실내외 인테리어 장식, 부동산 등
주최자	VIETBUILD CONSTRUCTION INTERNATIONAL EXHIBITION ORGANIZATION CORPORATION +84-978-607-987 / sale.vietbuild@gmail.com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5. 7.31 기준 누계		2025. 1. 1 ~ 7.31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10,253	94,896.56	241	279.76	3,914.41
싱가포르	4,187	87,282.66	305	2,840.00	5,505.93
일 본	5,608	79,399.86	158	865.80	2,301.66
대 만	3,353	42,068.68	104	735.04	1,341.93
홍 콩	3,504	39,713.55	274	721.21	1,235.09
중 국	5,772	33,404.42	695	2,272.08	2,806.55
버진아일랜드(영)	946	24,370.88	26	317.08	800.50
네덜란드	466	14,991.72	17	61.19	147.06
태국	769	14,925.48	19	59.44	877.07
말레이시아	773	14,611.67	23	8.14	1,621.63
미국	1,479	12,037.81	75	193.87	260.62
기 타	7,244	64,349.14	317	1,681.33	3,281.43
전체 합계	43,902	522,052.40	2,254	10,034.92	24,093.89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5. 7. 31 기준 누계		2025. 1. 1 ~ 7.31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8,588	319,479.74	827	5,611.30	13,723.21
2	부동산 경영	1,278	78,299.44	64	2,356.54	4,991.07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99	42,028.22	2	119.40	307.75
4	호텔, 외식서비스	1,044	14,211.23	47	176.71	471.54
5	건설	1,860	10,528.86	29	9.62	195.81
6	도소매, 유지보수	8,744	12,569.44	757	323.54	1,137.35
7	물류운수	1,268	7,190.55	76	87.70	140.17
8	과학기술, 전문활동	5,002	6,309.30	254	271.86	1,256.66
9	정보통신	3,195	5,176.66	120	15.06	37.86
10	채광	107	4,870.39	-	-	0.77
11	교육, 양성	706	4,702.08	16	1.63	97.32
12	농,임,수산	536	4,842.99	3	11	28.54
13	예술 오락	152	3,169.42	2	0.28	1.42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87	3,710.09	6	1,075.04	908.98
15	의료와 사회복지	156	1,842.98	-	-	161.72
16	행정, 지원 서비스	709	1,238.18	44	22.72	131.94
17	금융, 은행, 보험	102	938.91	5	3.83	25.00
18	기타 서비스	163	933.29	2	2.60	159.68
19	가구내 고용활동	6	10.64	-	-	-
	합 계	43,902	522,052.40	2,254	10,034.92	24,093.89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증감율%)

구 분	2022	2023	2024	2025.7
수 출	3,713	3,546	4,055	2,624(+14.8)
수 입	3,589	3,263	3,807	2,522(+17.9)
무역수지	124	280	247	10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2	2023	2024	2025.7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7,994	52,379	53,891	32,460(-0.4)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55,536	57,336	72,584	56,711(+41.9)
기계/플랜트 및 부품	45,751	43,128	52,191	32,198(+14.6)
섬유/직물제품	37,566	33,329	37,036	22,588(+11.0)
신발류	23,895	20,237	22,871	14,086(+9.0)
원목 및 목제품	16,011	13,467	16,282	9,646(+8.1)
철강제품	7,993	3,973	4,594	3,275(+30.2)
수송수단 및 부품	11,988	14,157	15,066	9,909(+13.5)
수산물	10,923	8,971	10,040	6,083(+14.2)
원사(Yarn)	4,713	4,355	4,407	2,451(-3.5)
기 타	98,934	103,339	116,569	73,055
합 계	371,304	354,671	405,531	262,46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2	2023	2024	2025.7
전자제품 및 컴퓨터	81,884	87,965	107,053	81,784(+37.2)
기계/플랜트 및 부품	45,192	41,579	48,887	33,487(+24.5)
각종 전화기 및 부품	21,126	8,749	10,403	5,877(+8.2)
의류(원단)	14,706	13,016	14,905	8,754(+3.2)
플라스틱 원료	12,387	9,755	11,780	7,324(+11.6)
각종 철강	11,920	10,425	12,583	6,229(-9.6)
기타 비금속	9,253	7,626	9,554	6,376(+17.4)
플라스틱 제품	8,119	7,508	8,853	5,933(+19.7)
화학제품	9,144	7,605	7,735	4,504(+1.0)
화학물질	8,747	7,726	8,286	4,611(-6.0)
기 타	136,423	124,419	140,724	87,376
합 계	358,901	326,373	380,763	252,255(+17.9)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1	2022	2023	2024	2025.7
1	미 국	96,293	109,388	97,020	119,501	85,122
2	중 국	56,009	57,702	61,207	61,211	35,022
3	한 국	21,945	24,293	23,498	25,619	16,298
4	일 본	20,128	24,232	23,314	24,608	15,148
5	홍 콩	11,996	10,936	9,631	12,423	9,420
6	네덜란드	7,686	10,430	10,241	12,993	7,451
7	독 일	7,286	8,968	7,400	7,934	5,498
8	인 도	6,259	7,961	8,498	9,064	5,945
9	태 국	6,161	7,476	7,192	7,782	4,840
10	영 국	5,765	6,065	6,345	7,543	4,680
	기 타	96,782	103,853	100,325	116,853	73,038
	합 계	336,310	371,304	354,671	405,531	262,46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1	2022	2023	2024	2025.7
1	중 국	109,874	117,866	110,644	114,020	101,454
2	한 국	56,155	62,088	52,511	55,925	33,663
3	대 만	20,772	22,631	18,421	22,741	18,007
4	일 본	22,648	23,373	21,638	21,588	13,774
5	미 국	15,270	14,470	13,822	15,102	10,535
6	태 국	12,564	14,092	11,797	12,447	7,457
7	오스트레일리아	7,946	10,144	8,533	7,592	4,199
8	말레이시아	8,148	9,124	7,809	9,133	6,215
9	인도네시아	7,587	9,641	8,728	10,527	6,606
10	인 도	6,950	7,086	5,864	5,829	3,335
	기 타	64,320	68,386	66,606	105,859	47,010
	합 계	332,234	358,901	326,373	380,763	252,255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7
수출	56,729(+16.9)	60,972(+7.5)	53,479(-12.3)	58,321(+9.1)	34,654(+5.0)
수입	23,965(+16.5)	26,726(+11.5)	25,941(-2.9)	28,440(+9.6)	17,707(+10.1)
무역수지	32,763	34,246	27,550	29,880	16,947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	2025.7
반도체	14,026(22)	16,240(15.8)	12,729(-21.6)	18,039(+41.7)	13,401(+38.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2,050(26.1)	12,527(4.0)	12,350(-1.4)	11,227(-9.1)	5,161(-16.5)
석유제품	1,157(-3.2)	3,733(222.3)	3,327(-10.8)	2,731(-17.7)	1,357(-20.7)
무선통신기기	3,315(-4.2)	2,358(-29.2)	2,166(-8.1)	2,511(+15.9)	1,358(-6.8)
합성수지	2,415(49.5)	2,581(6.9)	2,001(-22.5)	2,333(+16.8)	1,273(-7.3)
기구 부품	2,405(7.3)	2,194(-8.8)	1,861(-15.1)	1,772(-4.8)	1,021(-4.7)
플라스틱 제품	1,174(5.3)	1,067(-9.2)	1,021(-4.2)	1,055(+3.4)	609(-5.0)
철강판	1,267(20.4)	1,069(-15.6)	887(-17.0)	994(+12.0)	599(+22.9)
기타기계류	957(43.0)	793(-17.1)	801(+1.0)	664(-17.0)	379(-12.3)
계측제어분석기	717(4.5)	815(13.6)	734(-9.9)	593(-19.1)	346(-6.0)
기타	17,039	17,242	15,612	16,402	9,150
합계	56,729(16.9)	60,972(7.5)	53,489(-12.3)	58,321(+9.1)	34,654(+5.0)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	2025.7
무선통신기기	5,579(12)	5,986(7.3)	4,543(-24.1)	4,678(+3.0)	2,851(-1.5)
의류	3,393(7.9)	3,840(13.2)	3,542(-7.7)	3,593(+1.4)	1,842(-1.4)
컴퓨터	1,659(30.6)	1,948(19.1)	2,075(+6.6)	2,383(+14.9)	1,608(+17.6)
반도체	750(33.8)	787(5.0)	2,053(+160.9)	2,976(+45.0)	2,502(+70.4)
산업용 전기기기	725(26.2)	970(33.8)	1,396(+44.0)	1,699(+21.7)	1,123(+17.7)
신변잡화	984(-4.4)	1,250(27.2)	1,252(+0.1)	1,221(-2.5)	714(+0.2)
목재류	755(19.5)	942(24.8)	722(-23.3)	681(-5.7)	364(-8.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76(-14.7)	783(-10.5)	657(-15.9)	598(-9.1)	407(+16.3)
기구부품	624(29.6)	654(4.8)	571(-12.7)	654(-14.6)	398(+17.5)
영상기기	426(8.9)	441(3.6)	409(-7.2)	414(+1.2)	232(-1.7)
기타	8,161	9,103	8,718	9,543	5,666
합계	23,966(16.5)	26,726(11.5)	25,938(-2.9)	28,440(+9.6)	17,707(+10.1)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4~2025년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시 기	단위	국 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GDP증가율		2024년(연간)	%	7.09	5.03	4.4	5.1	2.5	5.6
		2025년 1Q	%	6.93	4.87	4.1	4.4	N/A	5.4
		2025년 2Q	%	7.96	5.12	4.3	4.4	N/A	5.5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4년(연간)	-	N/A	N/A	124.9	133.1	96.57	N/A
		2025년 5월	-	N/A	N/A	119.8	128.5	100.85	N/A
		2025년 6월	-	N/A	N/A	127.5	138.3	97.35	N/A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4년(연간)	-	N/A	N/A	N/A	49.35	49.88	N/A
		2025년 5월	-	49.8	47.4	49.6	48.8	51.2	50.1
		2025년 6월	-	48.9	46.9	50.0	49.3	51.7	50.7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4년(연간)	-	N/A	N/A	N/A	N/A	N/A	N/A
		2025년 5월	-	N/A	117.5	N/A	N/A	N/A	N/A
		2025년 6월	-	N/A	117.8	N/A	N/A	N/A	N/A
	소매판매	2024년(연간)	-	9	N/A	N/A	N/A	N/A	1.8
		2025년 5월	-	10.2	1.9	N/A	N/A	N/A	2.2
		2025년 6월	-	8.3	1.3	N/A	N/A	N/A	2.7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4년(연간)	%	3.63	N/A	N/A	N/A	N/A	3.2
		2025년 5월	%	3.24	1.9	N/A	N/A	N/A	1.4
		2025년 6월	%	3.57	1.3	N/A	N/A	N/A	1.3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4년(연간)	%	N/A	N/A	N/A	N/A	N/A	N/A
		2025년 5월	%	N/A	N/A	N/A	N/A	N/A	N/A
		2025년 6월	%	N/A	N/A	N/A	N/A	N/A	N/A
고용	실업률	2024년(연간)	%	2.24	N/A	2.0	3.2	1.00	3.8
		2025년 1Q	%	2.20	N/A	2.0	3.2	0.89	4.0
		2025년 2Q	%	2.24	N/A	2.3	3.0	0.89	3.9
무역	수출증가율	2024년(연간)	%	14.3	2.28	N/A	5.7	5.42	△0.6
		2025년 5월	%	17.0	9.68	2.5	△1.1	18.35	15.1
		2025년 6월	%	16.3	5.25	10.5	△3.5	15.50	26.1
	수입증가율	2024년(연간)	%	16.7	5.31	N/A	13.2	6.34	1.4
		2025년 5월	%	14.1	4.14	△0.5	6.6	17.98	△4.4
		2025년 6월	%	20.2	12.07	0.0	1.2	13.10	10.8

[자료원]

-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IER, S&P
 - (태국) 산업경제실(OIE), 태국중앙은행(BOT),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UTCC), 태국상무부(MOC),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 전망치는 *표시

2025년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KOTRA는 베트남 진출기업의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진출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일시 : 2025년 9월 18일(목) 13:50 ~ 16:50
- ❖ 장소 :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 72 호텔 5층, Ballroom 3
- ❖ 주최 : KOTRA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한투센터 협업), 법무부
- 변호사 및 관세사 1:1 무료 상담 부스 운영예정 (*사전 상담 신청 필요)
- ❖ 후원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코참 베트남
- ❖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변동가능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50-13:55	개회사	KOTRA
13:55-14:00	환영사	법무부
14:00-14:30	(온라인) 미국발 관세정책 여파와 우리기업에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 곽성일 센터장
14:30-15:00	2025년 하반기 경영 관련 신규 법률 및 이슈 안내	법무법인 세종 김홍주 변호사
15:00-15:20	중소기업 법률 지원사업 안내 및 주요 사례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잠정)
15:20-15:30	Tea Break	
15:30-16:00	베트남 관세 시장 최근 변동현황 '정부정책,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주의사항, 우회수출 주의사항'	신한 관세법인 신종호 관세사
16:00-16:30	2025년 변경 세제 안내	서우 회계법인 조성룡 회계사
16:30-16:50	Q&A	
16:50	폐회	

- ❖ 참가신청방법 : 9월 15일(월)까지 우측 QR코드 스캔 또는 링크를 통해 신청

* 신청 링크 : <https://forms.gle/ewWDhJfht9B7cCoN6>

- 문의처 : KOTRA 하노이 무역관

김경돈 팀장 (024-3946-0511) / kimkdon@kotra.or.kr

장세연 대리 (024-3946-0511 ext: 531) / seyeonjang@kotra.or.kr



kotra 베트남비즈니스 NEWS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KOTRA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 +84 24-3946-0511 ✉ seyeonjang@kotra.or.kr <저작권자©KOTRA >